

무소속

책자형 선거공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영월군제2선거구

(영월읍 흥월리 팔괴리 정양리 덕포리,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영월에
살고
영월에
죽는다

5 윤길모
도의원 후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영월군제2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5	무소속	윤길로	남	1963. 03. 28 (63세)	강원특별자치 도의회의원	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전)영월군의회의원 (7대, 8대) 전)영월군의회 8대전반기 의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상 황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82,688	182,688			고지거부	육군병장 만기전역	해당없음	장남 육군중위 만기전역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 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5,601	0	0	없음
후보자	1,393	0	0	
배우자	-	0	0	
직계존속	-	0	0	
직계비속	4,208	0	0	

4. 소명서

--

“ 보통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던데, 당신은 한결같다고요 ”

“동네 어려운 일 있을 때 눈치 안 보고 할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데요. ‘윤길로가 의원하면 잘하겠네’ 턱도 없는 얘기하지 마시라 했는데 웬걸요. 누가 자꾸 약을 올리는 겁니다. 하긴 네 주제에 무슨 의원이나, 지나던 뭐가 웃겼다면서요. 의원? 그게 뭐기에 이렇게 비웃음을 사야 하나 싶었어요. 까짓 해보이겠다 한거죠”

그렇게 4년 동안 오후 11시 전에 집에 간 적이 없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민들을 만났거든요. 하우스 가서 토마토 심고, 약도 치고, 농약 줄도 잡아주고, 포도 사과 전지 작업 하고요. 제가 농고를 나와서 그런 걸 잘했어요. 슬슬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보통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던데, 당신은 한결같다고요”

출처:여성조선(<https://woman.chosun.com>)

상생과 희망의 길 윤길로가 가는길 !

동강과 서강이 만나듯
모두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지역 발전의 큰 줄기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난관, 어떤 장애물도 흐르는 강물의 힘은 거스르지 못합니다.
시냇물이 모여 큰 강물이 되듯이 영월군민을 하나로 모을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진 윤길로!
영월 발전의 큰 물길을 만들겠습니다.

항상 힘주어 두 손 잡아주는 따스한 격려와 큰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에 보답하고자 큰 용기를 내어 다시 도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과 잊지 못할 믿음을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민과의 상생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고군분투하려 합니다.

저는 더 나은 영월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원도의원 후보 윤길로 올림



말이 아닌 땀으로, 화려한 공약 대신 현장의 거친 손마디로 증명해 온 일꾼...

영월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폐광 이후 대안을 미루며 버텨온 시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일상이 된 현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쉽지 않다”라는 체념이
지역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환의 시점으로 봅니다.

영월의 문제는 아이디어 부족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와 행정의 부재였습니다.
말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결과로 답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영월은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저는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영월의 문제를 중앙 정치의 이해 관계가 아닌 지역 현실과 행정의 논리로 판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소속은 편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설득이 필요했고, 정치적 보호막 없이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과 정책에서 성과와 책임이라는 기준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환 국면은 개인의 소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폐광 이후 전략,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대응, 행정 신뢰 회복은 지역의 결단과 국가적 방향이 맞물려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는 기득권 정치의 관성을 끊고, 성과와 책임을 정치의 기준으로 삼는 실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무소속으로 지켜온 철학, 관행보다 원칙, 선심보다 책임을 정치적 책임의 틀 안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자리를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가 해 온 정치와 행정을 가장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시 도의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영월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주천에서 학교를 다니며 농업과 생활권, 사람들의 관계망을 체득했습니다. 영월은 제 이력의 배경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입니다. 군청 공무원으로 행정을 경험했고, 군의원·군의회 의장·강원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집행과 감시의 자리를 모두 거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의 결과에 책임자리를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가 해 온 정치와 행정을 가장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탄원서 제출

(사건번호: 대법원 2024두3255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CCTV 작동 중

윤길로가 책임지는 군정으로 영월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영월 군정의 원칙

성과 없는 예산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행정의 기준을 주민의 삶에 두겠습니다.
이동·노동·돌봄·생계 흐름에 맞게 행정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영월의 전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유행 산업이 아닌, 영월의 조건에 맞는 전략을
차분히 구축하겠습니다.



한중국제교류협회 중국 지린성 방문
(제4회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 인민대표대회 방문)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 현지시찰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현지시찰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현지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회 감사패 수여식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윤길로는 군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머무르는 관광 영월

스쳐 가는 영월이 아닌, 머물고 싶은 영월로 역사와 박물관 자산을 하나로 잇는 체류형 관광으로 영월을 바꾸겠습니다.

2

농민이 대접받는 일터

대표 브랜드 육성과 새 소득 작물 보급으로 농업이 대접받는 일터를 일굽니다.

3

농업 소득 증대

영월 농산물이 이름값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브랜드 하나로 전국에 영월 농민의 긍지를 세우겠습니다.

4

교통 복지 개선

구석구석 닿는 영월, 외딴 마을에도 차가 닿고, 교통 복지와 골목 경제를 동시에 살려 막힘없는 생활을 만들겠습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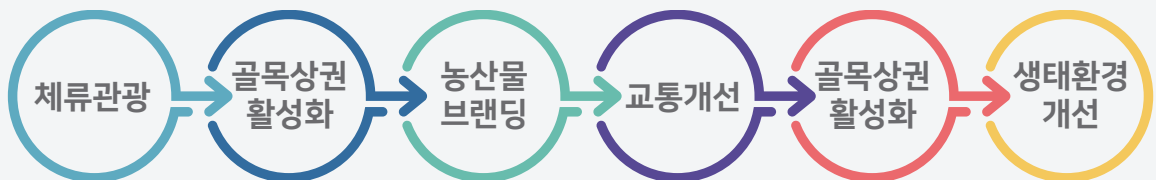
골목 경제 활성화

골목골목 사람이 사는 영월, 골목에도 돈이 돕니다.
어느 마을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과 경제를 함께 잇겠습니다.

6

홍수 안전·생태 환경 조성

물길을 다스린 경험으로 영월을 지킵니다.
치수 전문가로 쌓은 경험을 안전하고 청정한 영월 환경에 쏟겠습니다.



탁월한 행정경험과 제7 8대 영월군의원, 제11대 강원도위원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지역발전을 이끌어하겠습니다

윤길로가 걸어온 길

조금 더 강한 영월
그래서 더 행복한 영월
일하는 길로 행복한 길로
윤길로

| 학력 |

- 주천초등학교 졸업
- 주천중학교 졸업
- 주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경력 |

- 전) 영월군청 근무
- 전)영월군의회의원(7대,8대)
- 전)영월군의회 8대전반기 의장
- 제11대 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11대 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소


주소 영월군 주천면

전화 010-2840-0949

이메일 gil-no@hanmail.net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영월군제2선거구

1	00당	000	
2	00당	000	
3	00당	000	
5	무소속	윤길로	

무소속 **도의원 후보**
5 윤길로